

essay상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이설희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03학번 이설희입니다. 여기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중략) CM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중략) 건설전반에 대해 들으면서 수료기간이 끝나는 날 인생설계를 마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와서 처음한 말이다. 그렇다. 나는 학교 너머 사회속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인생설계를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세우고 싶었다.

아름답게 포장해둔 마스크속의 건축가를 보고 건축과에 처음 발을 들였고, 건축과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설계 하는거 아니냐는 단순논리에 의해 건축학 5년제를 선택하여 지금까지 그림책 열심히 보며 나를 예술가라는 자부심을 키워나갔다. 힘들 때는 “창조의 세계는 어려운 거야” 위로하며 밤새 뜬눈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점점 설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휴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건축설계를 떠나고 싶었다. 나의 방향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졸업을 1년 앞둔 상태에서 금융위기에 채용한파를 맞았다. 그런데 오히려 휴학과 금융위기는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준 셈이다. 왜냐하면 취업만 빨리하려던 내 발을 멈추게 했으니깐 말이다.

건설리더 아카데미에서 5주 동안 실무에 계신 강사님들의 주옥같은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아로 새기며 내가 왜 방향했는가를 알았다. 나는 ‘어디어디에 취업하겠다’는 목표는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되겠다’ 하는 진정한 비전이 없었다. 학교에서 설계에 임할 때에도 다를 바 없었다. 그냥 점수를 잘 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시야가 좁았다. 건설 분야의 전부가 건축인 양, 건축의 전부가 설계인 양 모 아니면 도라는 흑백논리로 설계가 싫으니깐 건축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학교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마음만 먹었다면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고 있었다. 이것이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건설 분야는 참으로 광범위하고 공부할 내용도 많아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학교 밖으로 나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있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다. 밤샘작업으로 늘 낮과 밤이 바뀌어 살았던 나에게 5주 동안은 아침을 기다리게 했고, 하고자하는 의욕을 불어넣어준 비타민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건설사업 관리자를 위한 길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건설회사에 가야하는 명분을 세워주었다. 또한 이때까지 살면서 해외에 나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도화선 역할을 해주었다.

해외건설시장을 피부로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어떻게, 얼마나, 왜 선진화 되어있는지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해비타트 봉사활동에서도 느낀 거지만 OJT시간 내내 들떠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너무 장밋빛으로 바라보는 것 일수도 있지만 훗날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인생설계가 명확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보가 광범위해서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다. 나의 심장이 건축분야에 아직도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이 움직이는 비전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나는 값진 시간을 함께 보낸 건설리더 아카데미 식구들이 너무 좋고 건축을 사랑한다.